

아르헨티나
原發建設計劃

아토차 2号, 西獨 KWU가 受注

重水 製造工場은 스위스 술수아社에 落札

○

○

아르헨티나 政府는 10月 1日, 計劃中인 同國 세번째의 原子力 發電所 아토차 2號機에 西獨의 크라프트벨크·유니온(KWU)社製의 重水爐를 採用함을 발표함과 함께 重水製造 工場은 스위스의 술수아社가 落札했음을 發表하였다.

아르헨티나는 自國의 풍부한 天然우라늄을 利用할 수 있는 重水爐에 과녁을 쏘고 캐나다의 CANDU爐, 西獨 KWU社의 重水爐를 검토해왔다. 原子爐의 海外 판매가 부진한 시기였던 만큼 캐나다-西獨의 판매戰은 불꽃이 튀겼으나 이번의 발표에서 終止符가 찍혔다.

아르헨티나 政府는 금년 2월, 4基의 原發 건설계획을 승인, 그 후 同國에서 重水爐의 受注 실적을 가진 西獨 KWU社와 캐나다 原子力 公社의 판매는 갑작스러이 活發化 하였다.

신규 계획의 4기中, 제1호에 상당하는 아토차 2號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AECL은 \$ 10億 7,500万, KWU는 그것보다 50% 높은 \$ 15億 7,900万으로 入札, 캐나다側은 「大幅의 인 코

스트差는 아르헨티나의 決定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전망을 굳혔다.

그러나, 서독측이 入札에서 내는 조건은 아르헨티나의 「自主技術 確立」을 발판으로 하려는 아르헨티나側의 大幅의 인 參加를 인정하는 소위 「턴키方式」이 아닌 方法으로서 建設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장래의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원자로는 반드시 KWU의 설계에 따른다는 것은 없다. 캐나다가 생각하고 있는 蒸氣壓力 튜브의 채용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등 柔軟한 내용의 것을 提出하였다.

한편, AECL側은 CANDU爐 以外에 重水製造 工場도 一括해서 建設할 方針을 내놓았다.

이번의 政府 발표에서 카스트로·마테로 NEA 長官은, 「重水爐와 중수제조공장은 따로 주문하는 편이 “기술의 自主獨立”의 点에서 현명」하다고 하였으며, 속으로는 캐나다側이 提示하고 있는 세이프·카이즈에 難色을 표시함과 동시에 建設 코스트에 관해서는 「CANDU爐 6

基分の 코스트는 西獨製 4기分이라고는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고 서독이 낙찰한 이유를 들었다.

KWU는 原發건설에서 아르헨티나 國內의 제조 工場의 25%의 株를 取得, 단계적으로 그 持分을 아르헨티나側에 還元해 주기로 하였다.

重水제조 工場은, 스위스의 술수아社가 年産 250톤 규모의 것을 \$ 3億로 낙찰, 동 工場은 네우쿠엔주에 建設될 예정이다.

참고: 아르헨티나는 원자력 개발에서는 中南美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현재, 운전중인 서독製 아토차 1號 (PHWR, 34万kW)와 캐나다製의 엠발세 (CANDU, 64万 8千kW)를 建設중이다. 政府는 금년 2月, \$ 50億의 예산으로 4基 建設, 2000년까지는 원자력으로서 총계 400万kW가까이를 가동시킬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시 9基의 原發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 서독에서는 이번의 아토차 2號 原發受注가 앞으로의 受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해서 심한 판매戰을 벌였던 것이다.

표현으로서 「推進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CRBR에 關係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경우는 海外로부터 實証된 증

식로를 導入하는 쪽이 경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런즈버그를 中心으로 한 보고서는 「2020년까지 LMF

BR의 경제성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 前者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슈퍼 페닉스 등 海外의 實証爐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